Special theme 2

2014년 주요 건설자재 수급전망

대한건설협회가 시멘트 · 레미콘 · 철강재 · 골재 등 주요 건설자재의 2014년도 수급전망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SOC 예산감축에 따라 도로개설 등 토목투자가 감소하고, 공공주택공급 축소와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에 따라 지방의 신규 주택공급 위축이 예상되는 등 건설수주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시멘트 수요가 4,300만톤으로 전년대비 3.2% 감소하고 레미콘 수요량도 1억2,970만㎥으로 전년대비 2.0% 감소하는 등 2014년 건설자재 소급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멘트

2013년 시멘트 수급 실적

2013년에는 정부의 SOC 예산 증가(추경 포함 8.4%) 및 건설투자액 확대(4.7%)에 따라 공공부문 및 토목부문의 시멘트 수요가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민간부문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시멘트 내수는 상반기 중에 1.3% 감소하였으나, 하반기는 지난해 감소(8.4%)에 따른 기저효과와 정부 SOC 추경편성(1.7조원)에 따라 전년대비 7.1% 증가했다. 이에 2013년 연간내수는 전년대비 2.8% 늘어난 4,520만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에는 수출도 증가했다. 즉 전기료, 물류비 인상 등 비용 증가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내수 수요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수출에 주력하여 전년보다 12.8%가 증가한 355만톤(클링커 550만톤 제외)을 수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시멘트 수급실적을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일부 업체의 공장가동 중단 여파로 시멘트 생

시멘트의 2013년 수급실적 및 2014년 수급전망

(단위 : 천톤,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대비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대비
수요	내수	43,939	22,279	22,883	45,162	102.8	21,600	22,400	44,000	97.4
	수출	3,150	1,580	1,972	3,552	112,8	2,000	2,100	4,100	115.4
	계	47,089	23,859	24,855	48,714	103.5	23,000	24,100	47,100	100.0
공급	생산	46,862	23,099	24,203	47,302	100.9	23,300	24,000	47,300	99.9
	수입	730	405	347	752	103.0	360	350	710	94.4
	계	47,592	23,504	24,550	48,504	100.9	23,460	24,350	47,810	94.4
재고		1,866	-	-	987	52.9	-	-	-	-

주 : 2013년 12월은 추정, 수출은 클링커 수출 제외

산에 차질이 발생하여 상반기 중 1.3% 감소하였으나 국내 수요 및 수출량 증가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오히려 7.1% 증가했다. 이에 2013년 시멘트 생산은 4,730만톤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의 경우 국내 수요가 소폭 늘어남에 따라 시멘트 수입 역시 소폭 증가한 75만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시멘트 수급 전망

정부의 SOC 예산 축소(4.3%)로 인해 공공 및 토목부문의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투자가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시멘트 수요를 유발하는 건축활동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여 2014년 시멘트 수요는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멘트와 혼합해 사용되는 슬래그 및 플라이애시의 수요 증가에 따라 시멘트 수요를 추가적으로 잠식할 것으로 보여 2014년의 시멘트 내수는 전년대비 2.6% 감소한 4,400만톤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출과 관련해 2014년 세계경제는 올해의 회복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수요 감소에 따라 업계가 수출에 보다 주력할 것으로 보여 전년대비 15.4% 증가한 410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측면에서 2014년 시멘트생산은 국내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 확대에 따라 전년수준인 4,710만천톤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의 경우 국내 수요 부진에 따라 2014년에는 전년대비 5.6% 감소한 71만톤을 수입할 것으로 보인다.

레미콘

2013년 레미콘 수급 실적

2013년 레미콘 수급실적은 보금자리주택 및 도시형 생활 주택, 혁신도시 및 공공 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의 128,268천㎥에 비해 3.1% 증가한 32,300천㎥를 출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레미콘의 2013년 수급실적 및 2014년 수급전망

(단위 : 천㎥,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증감률	상반기	하반기	연간	증감률
전국	128,268	63,500	68,800	132,300	3.1	61,600	68,100	129,700	-2.0

2014년 레미콘 수급전망

2014년에는 미분양 적체로 인해 민간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공공주택 공급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2014년 레미콘 출하는 정부 SOC예산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전년대비 2.0% 감소한 129,700천㎥를 출하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철강재

철근

철근의 경우 지난 2013년은 건설투자가 회복되었으나, 정부의 부동산대책 등이 반짝 효과에 그치고 유통가격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수 및 생산이 전년대비 감소를 기록하는 등 수급상황이 개선되지 못하였다. 2014년에는 정부의 SOC예산 축소 등 건설투자 증가세가 큰 폭으로 축소되는 등 건설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대부분의 물량이 건축(주택)분야에 투입되는 철근제품의 특성상, 거래 활성화 등 주택시장 회복이 수급상황 개선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철근의 2013년 수급실적 및 2014년 수급전망

(단위 : 천톤, %)

구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2014년	전년대비
수요	내수	9,266	9,015	-2.7	8,720	-3.3
	수출	321	350	9.0	430	22.9
	계	9,587	9,365	-2.3	9,150	-2.3
공급	생산	9,077	8,895	-2.0	8,730	-1.9
	수입	510	470	-7.8	420	-10.6
	계	9,587	9,365	-2.3	9,150	-2.3
재고		-	-	-	-	-

형강

2013년 형강은 삼성, LG의 해외 휴대폰공장 착공 등 해외건설 프로젝트 호조로 수출은 증가했으나 수입증가로 생산 및 내수는 동반 감소했다. 2014년에도 건설경기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업계의 수입대응 지속, 기저효과 등으로 생산 및 내수가 전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형강의 2013년 수급실적 및 2014년 수급전망

(단위 : 천톤, %)

구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2014년	전년대비
수요	내수	4,736	4,595	-3.0	4,640	1.0
	수출	1,553	1,590	2.4	1,570	-1.3
	계	6,289	6,185	-1.7	6,210	0.4
공급	생산	4,839	4,620	-4.5	4,670	1.1
	수입	1,450	1,565	7.9	1,540	-1.6
	계	6,289	6,185	-1.7	6,210	0.4
재고		-	-	-	-	-

강관

강관의 경우 2013년에는 소비심리 위축 및 건설경기 정체 등으로 생산 및 내수가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으나, 북미/유럽지역의 에너지수송용 수요호조로 수출은 전년수준을 유지했다.
2014년에도 국내 건설경기 부진 지속, 미국의 무역제소 영향 등으로 전반적인 수급상황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관의 2013년 수급실적 및 2014년 수급전망

(단위 : 천톤, %)

구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2014년	전년대비
수요	내수	3,568	3,320	-6.9	3,360	1.2
	수출	2,850	2,860	0.4	2,900	1.4
	계	6,418	6,180	-3.7	6,260	1.3
공급	생산	5,662	5,390	-4.8	5,480	1.7
	수입	756	790	4.4	780	-1.3
	계	6,418	6,180	-3.7	6,260	1.3
재고		-	-	-	-	-

골 재

2013년 골재 수급 실적

2013년 골재수요는 2012년과 거의 같은 수준인 201,175천㎥ 수준을 기록했다. 2013년 골재의 공급 측면을 보면 전체적으로 수급이 원활하게 이어진 가운데 전체 수요의 52.0%인 127,050천㎥를 허가(EEZ 포함) 및 선별 · 파쇄 등의 신고물량으로 공급했고, 48%는 준설토, 타 법률에 근거하여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골재로 공급이 이루어졌다. 서울 · 대전 · 광주 등 골재원이 없는 지역은 인근 광역시 및 EEZ물량 반입을 통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했다.

2013년 골재 수급 실적 및 2014년 수급 전망

(단위 : 천㎥)

구분	2013년			2014년			전년대비
	합계	상반기	하반기	합계	상반기	하반기	
계	201,175	98,778	102,397	201,424	96,685	104,739	0.12%
수도권	56,507	27,745	28,762	62,055	29,786	32,269	9.8%
강 원	10,185	5,001	5,184	9,251	4,441	4,810	-9.2%
충 북	10,383	5,098	5,285	8,661	4,157	4,504	-16.6%
충남권	25,358	12,451	12,907	24,135	11,585	12,550	-4.8%
전 북	10,782	5,294	5,488	11,280	5,152	6,128	4.6%
전남권	22,365	10,981	11,384	19,135	8,741	10,394	-14.5%
경북권	21,566	10,589	10,977	21,934	10,020	11,914	1.7%
경남권	39,535	19,421	20,123	40,945	18,703	22,242	3.6%
제 주	4,494	2,207	2,287	4,028	1,840	2,188	-10.4%

자료 : 국토교통부 2014년도 골재수급계획

2014년 골재 수급 전망

2014년도 골재수요량은 건설투자 전망치(154.3조원)와 2014년 레미콘 출하 원단위(10억원당 레미콘 출하량 698㎥)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약 2.6% 증가한 201,424천㎥로 전망된다.

한편 골재의 공급은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허가물량(EEZ포함)이 133,724천㎥(62.3%), 신고물량(준설토포함) 80,860천㎥(37.7%)을 계획하고 있다.

원심력 콘크리트

흄관

2013년에는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하수관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분리발주로 인해 관급실적이 증가한 반면 민수 실적은 다소 저조하였다. 특히 관급시장에서는 흄관이 타 하수관에 비해 경제성이 우수하여 대체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었다.

2014년에는 공공부문의 예산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특히 SOC예산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관급시장이 지난해보다 약세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민간부문 투자는 증가되어 민수시장이 작년보다 성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소폭의 증가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내 하수도 보급률이 상당 수준에 이르렀고 콘크리트관의 오수관 사용이 거의 없어 큰 폭의 매출증가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심력 콘크리트의 2013년 수급실적 및 2014년 수급전망

(단위 : 천톤, %)

물품명	구분	2013년				2014년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대비	상반기	하반기	계	전년대비
내수	수요(내수)	502,000	500,000	1,002,000	104.5	527,000	525,000	1,052,000	105.0
	공급(생산)	520,000	510,000	1,030,000	104.2	546,000	530,000	1,076,000	104.5
파일	수요(내수)	4,020,000	2,681,000	6,701,000	123.8	4,500,000	3,000,000	7,500,000	111.9
	공급(생산)	4,100,000	2,733,000	6,833,000	124.3	4,600,000	3,100,000	7,700,000	112.6

파일

2013년 파일시장은 정부의 건설부문 추경예산 편성 및 집행과 4.1부동산 대책 등이 대부분 2/4분기 내에 집중되어 공공기관의 수주물량이 상반기에는 활발하였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건설사업부문 중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이 행복주택으로 변경되면서 정책이 완성되기까지의 기간동안 발주물량이 주춤하여 PHC파일의 수요 물량이 전년도 예상실적보다 다소 적게 나타났다.

2014년도의 경우 정부의 SOC예산이 전년대비에 7.0% 감소됨에 따라 건설 및 주택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신규 공사발주 및 건설투자가 예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어 수주물량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 할 것으로 판단된다.